

광주·전남 창업기업 크게 줄었다

올들어 전년 동기보다 광주 385곳·전남 1051곳 감소
기술창업 등 늘어 전국적으로 4월 창업 0.2% 증가

경기 불황에 창업 열기가 식으면서 올해 1~4월 광주·전남지역 창업기업이 지난해보다 1400여 개 급감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4월 지역 창업기업은 광주 3119개·전남 3812개로 총 6931개 사이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곳(2.1%) 늘었지만 1~4월 누계를 비교하면 지난해에 비해 385곳(3.1%)이나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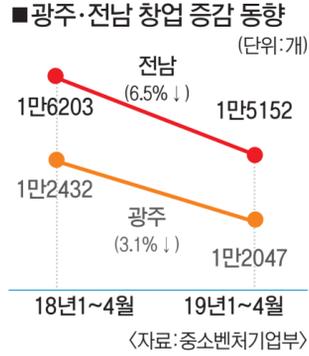
전남지역의 창업기업 감소율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창업기업 수는 전월보다 65곳(1.7%)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 보다는 151곳(3.8%) 급감했다. 지난해 누계를 비교하면 무려 전남 창업기업은 1051곳(6.5%)이나 감소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최근 3년 동안의 창업기업 수는 ▲2016년 6만

9289개(광주 3만1763·전남 3만7526) ▲2017년 7만6060개(광주 3만3377·전남 4만2683) ▲2018년 8만1309개(광주 3만5627·전남 4만5682)로 2년 새 1만2020개(17.3%) 늘었다. 해마다 5000~6000곳씩 창업기업이 늘었지만 올해 1분기 창업기업 실적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광주 450개(4.8%)·전남 900개(7.4%) 줄어들었다.

지난 4월까지 창업기업 수가 급감한 이유는 부동산업 창업의 일시적 증가세가 꺾였기 때문이라는 게 증가부족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한때 급증한 부동산업 창업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창업 감소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경기로 창업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에 창업기업 수가 급감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7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2만6836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창업여건이 좋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3명 중 1명 꼴(32.8%)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보통'은 46.3%, '매우 그렇다'는 21.0%로 집계됐다. 5점을 만점으로 평가할 때 평균 점수는 3.82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4월 창업기업은 11만357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3292개보다 0.2% 증가했다. 기술창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교육 등)은 1만937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했다.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전통서비스업 중에서는 숙박·음식점이 1만801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다. 도·소매업은 3만171개로 8.7% 증가했고, 개인서비스업은 5612개로 8% 증가했다.

형태별로는 법인 창업이 987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하며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 창업은 10만3698개로 0.6%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 창업이 5만2211개로 1.8% 감소했고, 남성 창업은 2.1% 늘어난 6만1295개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39세 미만) 창업이 3만8819개로 1% 늘었고, 고령층(60세 이상) 창업은 1만4767개로 5.7%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24.78 (+26.07) ↓ 금리(국고채 3년) 1.48 (-0.01)
- ↑ 코스닥 717.71 (+2.85) ↓ 환율(USD) 1176.10 (-9.70)

주요 그룹, 지난해 내부거래 94% 수의계약

CEO스코어 분석 삼성 24조원 규모

지난해 국내 주요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가운데 무려 94%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의 102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액 168조6906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94.1%(158조758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93.7%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 2016년보다는 0.8%포인트 상승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51개 그룹 중에 18곳은 지난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이 24조1668억원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세계(1조9681억원)와 중흥건설(1조8404억원)이 1조 이상이었다. 특히 부영, 셀트리온, 카카오, 넥슨,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 12곳은 내부거래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처리했다.

기업별로는 총 1028곳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100%인 곳이 893곳(86.9%)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가운데 수의계약이 전혀 없었던 그룹 계열사는 삼성중공업, SKC솔믹스, 롯데캐피탈, GS바이오, ㈜한진 등 49곳에 그쳤다. /연합뉴스

호남고속도 백양사휴게소 수소충전소 21일 문 연다

백양사휴게소(전안 방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1일부터 호남선 백양사휴게소(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156-6)와 중부내륙선 성주휴게소(양평 방향), 경부선 언양휴게소(서울 방향)에 수소충전소가 추가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연중무휴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1대당 5분 이내에 완전충전(현대차 넥쏘 기준 600km 주행 가능)이 가능하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로 약 30분이 걸려서 완전충전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다.

수소 충전요금은 모든 고속도로 충전소에서 1kg당 8000원대로, 업체에서 공급받는 가격 그대로 고객에게 판매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매일의 빛을 담은 푸른 보약, 매일 소비족진 시연회

일시 2019. 6. 19.(수) | 주최 전남농협, 광양시 관내농협 | 후원 광주농산물중앙유통센터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는 19일 농협광주유통센터에서 광양매일 소비족진을 위한 매일청담금 시연회를 열었다. 센터는 이날 담근 매일청 300병을 매일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23일까지 진행한다. <전남농협 제공>

"늦었지만"...광주시 수출위기 타개 비상체제 가동

수출이 5개월 연속 내리막길(광주일보 6월12일자 14면)을 걷자 광주시가 수출위기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 수출위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수출지원 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전남코트라지원

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수출지원기관 10곳이 참석, 각 기관의 수출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영세한 지역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출마케팅 및 통번역 등에 따른 고급인력 인건비에 대한 문

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마케팅 활동비 지원이 직접사업비에 한정됨에 따라 해외판로 개척에 제약 받는 기업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거버넌스 참여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컨설팅과 통번역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금과 무역보험료 지원 등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광주 수출 실적은 전년동월대비 1월 -6.1%(11억8600만달러), 2월 -0.6%(10억700만달러), 3월-4.7%(11억7600만달러), 4월 -0.6%(11억9600만달러), 5월 -3.9%(12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이보다 더 급격하게 수출이 줄었다. 1월 -8.7%(30억1800만달러), 2월 -6.8%(24억6100만달러), 3월 -2.2%(27억9700만달러), 4월 -4.5%(31억8800만달러), 5월 -17.0%(24억9500만달러)를 보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공기업 대표 지난해 평균 연봉 1억9424만원

잡코리아 36개 공기업 분석

한국전력이 2억58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동서발전(2억4554만원) ▲인천항만공사(2억3601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2억3305만원) ▲한국남동발전(2억299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을 2억원 넘게 받은 공기업 대표는 전체 36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개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전력이 2억58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동서발전(2억4554만원) ▲인천항만공사(2억3601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2억3305만원) ▲한국남동발전(2억299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을 2억원 넘게 받은 공기업 대표는 전체 36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개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 우수등급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사진)이 4년 연속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 활동심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전은 "지난 18일 '2019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4개 등급 가운데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5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 등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독립성·전문성 등에 대한 28개 심사지표를 기준으로 감사활동을 평가했다. 한전은 올해 '엄정·배려·신뢰'의 감사, 도약하는 Kepco'를 내걸고 다양한 감사 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감사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사 독립성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여성 감사인력 충원 목표제를 도입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전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공기업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해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켰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앞으로 부조리·방만경영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한전이 대표 공기업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